

사무장병원 중심 보험범죄 수법 진화

세계 심장학 명의들 온라인 토론

광주국제심장중재술심포지엄 10일부터 DJ센터서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사기 근절하자

〈中〉 넘쳐나는 한방·요양병원

광주에서 지난 2017년부터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여 명의 환자들에게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 챙긴 한방병원의 한의사와 의사가 지난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또 비슷한 시기에 51명의 환자들에게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환자들 보험사들로부터 1억 2000여만원을 편취토록 방조하기까지 했다. 이 한방병원 의사는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25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광주지역 한방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보험사기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을 알선해주는 전문 브로커와 각종 직업군이 연계하면서 조직화·기업화되는 등 보험범죄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난립한 한방병원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안에 찜질방을 설치하고 마사지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한방병원과 의심되는 병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시스템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광주에 한방병원 87곳 '전국 2위' 초기 개설 쉽고 증거 인멸도 쉬워 허위 진료·부당 청구로 이어져 시민 스스로도 자정 노력 있어야

2일 통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광주에는 총 87곳의 한방병원이 운영중이다. 경기도의 95곳 다음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한방병원이 많다. 전국 총 430곳중 광주가 20.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인구(4월 기준 144만 4787명)와 비슷한 대전(145만 7619명)에는 한방병원이 12곳뿐이라는 점과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에 63곳뿐이라는 점만 봐도 광주에는 비정상적으로 한방병원이 몰려있다.

광주에 한방병원이 몰리는 이유는 광주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한의학·보건행정·보험관련 전공을 하는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치 않던지 않은 점 등이라고 보험업계는 설명한다. 결국 이들은 사무장 병원이나 브로커와 같은 보험범죄 유혹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수익을 위해 급여가 저렴한 한방 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개원한 뒤 '돈이 되는' 가짜 환자 위주로 입원시키거나, 소위 '나이동 환자' 등을 유치해 장기간 입원케 해 보험금 등을 타는 등 사기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또 한방병원이 초기 개설이 쉽고, 고가 장비가 필요 없으며, 수사시 증거 인멸이 쉬운 점도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방병원에서 보험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가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한다든가, 실제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치료 횟수를 부풀린 경우나 인가받지 않은 병상을 운영한다든지,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조사결과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 요양병원도 문제로 보고있다. 광주시의 요양병원은 2014년 41곳에서 2020년 64곳으로 56.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8.32%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광주지역은 과도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요양병원은 암 환자, 치매 환자 등 대부분 중증 환자가 입원해 치료와 더불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의료기관으로 생애 대한 동정 및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환자들 대부분이어서 국민건강보험 또는 민영보험에서 관리가 좀 느슨하고, 검·경 수사기관도 수사에 다소 소극적이고 부담을 갖는 경향이 있는 점을 일부 불지각한 의료기관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불법적인 부당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이 악화돼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관계자는 "광주를 광주답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인권도시 시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사고가 나면 때를 쓰거나 놓고 보는 태도는 광주의 이미지를 해친다는 점을 명심해 시민들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세계 최고의 심장학 석학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광주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19차 광주 국제심장중재술 심포지엄(GICS)이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GICS'는 전남대병원 심장센터 주관으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광주에서 열리고 있으며, 국내·외 심장전문가들이 강연 및 중재 발표 등을 통해 최신 지견을 교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의료 전문가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 전남대병원에서 실시간 라이브 시술을 중계하고 중앙대병원, 서울성모병원에서 비디오 녹화를 통해 시술 교육을 시행한다. 심포지엄에는 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중국·일본·홍콩·싱가포르·인도네시아

·이스라엘·체코·타이완 등 14개국에서 68명의 심장학자들이 초청돼 최신 지견에 대한 열린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는 대학병원 및 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해 전공의·간호사·의료기사 등을 포함한 심장학 관계자 총 1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GICS 조직위원장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와 안영근(전남대병원장) 교수 등이 주축이 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경피적 대동맥막치환술·좌심방이폐색술을 포함한 심장중재술 시연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급성심근경색증 등록 공동 연구인 KAMIR-JAMIR 심포지엄·Korea-Mayo 심포지엄·Korea-London 심포지엄 등이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공론화한다

학부모회·시민사회 등 의견 존중...최적안 도출 노력

전남교육청이 효과적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추진한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를 고려,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효과적인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제한적공동화구제 확대, 농어촌 에듀버스·택시 운영, 각종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작은학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난 2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공론화를 위해 마련된 안은 1면 1교와 1도서 1교를 유지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학교 통폐합 때 '지역민 80% 이상 찬성 시 추진'이라는 기존 때문에 학부모 대다수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통폐합을 희망해도 추진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지적돼 예비 학부모를 포함한 학부모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했다. 향후 지역민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예비 학부모를 포함한 당해 지역 모든 학부모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복식학급 편성기준은 사회적 형성 발달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4명에서 5명으로 상향하도록 사전 예고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교장공모제 공정·투명하게"

학벌없는 사회 주장...일각선 '코드인사' 비판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2일 일선 학교의 교장공모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 교육청은 9월 1일 자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 대상 학교로 치평초와 월곡중 등 2개교를 선정했다"며 "일부에서 교장공모제가 낙하산 파견의 기회 정도로 악용된 사례들이 있는 만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내부형 교장 공모 대상학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공개하고 교장 선정과정에서 세부적인 평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란 학교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학교의 방향과 교육 철학에 맞는 교장을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교육경력 15년 이상)에게도 교장이 될 기회를 열어 주는 대안적 교장 임용 제도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그동안 교장공모제가 교육감과 코드가 맞는 평교사를 교장으로 '중용'하는 제도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투기 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2021.06.02(수) 11:00 광주광역시

'맥쿼리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 기자회견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가 2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시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금자동이체, 신탁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탁제휴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금은 신탁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탁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목로 315번길1)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안로9번길20-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